

# 기초식량작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향 - 쌀, 보리, 콩을 중심으로 -

이 상 하

농촌진흥청 기술공보담당관

## New Approach Directions for the Rai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Basic Food Crops in Korea

Sang Ha Lee

Public & Technical Information Offi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Summary

Agricultural products are inferior in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mainly due to the high production cost which could be attributed to the rising land and labor cost in Korea.

The small scale farming system with the lower production infra structure requires relatively intensive input labor for the reduction of production cost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impediment in the mechanization of farming systems.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cultivation techniques that seek out other directions for the raising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of basic food crops.

Future goals to raise competitiveness of basic food crops in Korea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

1. Fostering of the farmers organization by crop items.
2. Agribusiness should integrate management with priority given to farmers.
3. Raise competitiveness to find out the system of obtaining cooperation from the consumers.

## I. 서 언

WTO체제 출범 이후 우리농업은 2004년까지 거의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는 국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따라서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생산기반이 취약한 소농 중심의 자급자족 농업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전면개방 완전 경쟁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우리농업은 대단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고자 92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98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42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94년에는 농촌개발특별세를 신설하여 앞으로 10년동안 15조원을 추가로 투자하

여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려는 강력한 의지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투자사업 정책으로 첨단시설을 갖춘 소수의 전업농과 기업농이 새롭게 등장하여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몇 개의 유망한 작목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작목들은 시간이 갈수록 생산여건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어 농촌내부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식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기초식량작물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여 이런 상태로 가면 2004년 이전에 국내 생산기반마저 무너져 수입농산물에 의존해야 될 우려가 있다.

대다수 농업인이 참여하고 있는 기초식량작물인 쌀, 보리, 콩 등은 우리의 농지여건과 기후조건을 감안할 때 생산비를 줄이고 수량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성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는 구호를 앞세워 수출 농업이나 첨단농업을 위해서 몇 개 작목에 대한 집중 투자정책만으로는 우리농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이라는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우리농업에서 기초 식량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기초식량작물의 수급동향

우리나라 식량작물의 생산량을 보면 쌀의 경우 식부면적이 90년 이후 매년 30~40천 ha씩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따라 생산량도 줄고 있다. 93년에는 냉해의 피해가 겹쳐서 전년대비 581천톤이 줄어든 4,750천톤이었고 94년 쌀의 총생산량은 5,060천톤이었다.

맥류와 두류의 식부면적도 모두 크게 감소하고 있어 연평균 맥류 8.6%, 두류 3.5% 감소하고 있다. 94년 총 생산량은 맥류의 경우 234천톤, 두류는 178천톤이었다(표 1).

<표 1>

기초식량작물의 생산량 추이

(단위 : 천ha, 천MT)

구 분		80	85	90	91	92	93	94
미 곡	면 적	1,233	1,237	1,244	1,208	1,157	1,136	1,103
	생 산 량	3,550	5,626	5,606	5,384	5,331	4,750	5,060
맥 류	면 적	360	242	160	127	103	117	85
	생 산 량	906	584	417	340	315	321	234
콩	면 적	244	196	188	155	135	145	147
	생 산 량	266	275	271	224	212	201	178

※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 1995.

한편 쌀의 총소비량은 80년 5,402천톤에서 94년 5,409천톤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식용의 경우 같은 기간에 5,057천톤에서 4,741천톤으로 줄어든 반면, 가공용은 36천톤에서 278천톤으로 증가하였다. 1인당 연간 소비량도 80년 132.4kg에서 94년 107.5kg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보리의 총 소비량은 같은 기간중 1,407천톤에서 427천톤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가운데 식용은 527천톤에서 76천톤으로 격감하였고 1인당 소비량 기준으로는 13.9kg에서 1.7kg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가공용은 221천톤에서 331천톤

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주로 주정용과 맥주원료인 맥주맥에 대한 수요이다. 맥주맥의 경우 맥주맥 및 맥아의 수입확대로 국내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 않다.

콩의 총 소비량은 같은 기간중 733천톤에서 1,448천톤으로 증가하였다. 이중 주로 국내산으로 충당되고 있는 식용소비량은 95천톤에서 89천톤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가공용은 209천톤에서 330천톤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사료용은 33천톤에서 932천톤으로 크게 증가했다(표 2).

〈표 2〉 기초식량작물의 수요량 추이

(단위: 천MT)

구분	80	85	90	91	92	93	94	95(P)	
쌀	총 수요	5,402	5,501	5,445	5,490	5,526	5,510	5,409	5,257
	식용	5,057	5,259	5,127	5,032	4,930	4,855	4,779	4,741
	가공	36	43	80	148	285	347	399	278
	1인당	132.4	128.1	119.4	116.3	112.9	110.2	107.5	105.7
보리	총 수요	1,407	896	427	457	380	413	427	511
	식용	527	189	69	69	65	75	76	76
	가공	221	236	295	332	281	300	331	400
	사료	104	259	-	-	-	-	-	8
1인당	13.9	4.6	1.6	1.6	1.6	1.7	1.7	1.7	
콩	총 수요	733	1,130	1,254	1,202	1,503	1,274	1,367	1,448
	식용	95	99	84	91	92	88	89	90
	가공	209	282	271	269	255	256	330	319
	사료	333	725	866	805	1,141	914	932	1,024
1인당	8.0	9.3	8.3	8.3	7.9	7.8	9.4	9.1	

\* 1인당 소비량은 kg 단위임.  
\*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주요통계」, 1995.

이와 같은 기초식량 작물들은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하여 쌀의 자급률은 90년 108.3%에서 94년 87.8%로 떨어졌으며, 보리는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같은 기간동안 97.4%에서 48.3

%로 떨어졌다. 또한 콩의 경우에는 80년 35.1%(식용 64.3%)에서 94년 12.6%(식용 41.6%)로 떨어져 향후 식량의 안보적인 차원에서 안정 생산 기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표 3).

〈표 3〉 기초식량의 자급률 추이

(단위: %)

구분	80	85	90	91	92	93	94	95(P)
쌀	95.1	103.3	108.3	102.3	97.5	96.8	87.8	96.3
	(95.1)	(103.3)	(108.3)	(102.3)	(97.5)	(96.8)	(87.8)	(96.3)
보리	57.6	63.7	97.4	74.3	82.6	77.2	48.3	56.9
	(62.2)	(89.6)	(97.4)	(74.3)	(82.6)	(77.2)	(48.3)	(57.9)
콩	35.1	22.5	20.1	19.4	12.2	13.8	12.6	10.6
	(64.3)	(62.7)	(64.9)	(58.7)	(50.6)	(48.9)	(41.6)	(36.3)

\* 주:( )내는 사료용을 제외한 자급도임.  
\* 자료: 농림수산부 식량정책심의관실, 「업무편람」, 1995.

### Ⅲ.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분석

농촌진흥청에서는 WTO체제 이후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지속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경쟁력제고를 위한 주요작목 69개를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유망하거나 수출 잠재력이 있는 작목과 농가소

득 기여도가 크거나 수입농산물의 대체가 가능한 작목을 전략작목에 포함했다. 그리고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작목은 기초작목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하고 교역기능이 미약하여 가까운 장래에 기반확보가 어려운 작목은 기타 작목으로 분류하였다(표 4).

〈표 4〉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작목분류

전 략 작 목 (37)	수출지향 (15)	사과, 배, 감귤, 감, 참다래, 신선채소(오이), 화훼(선인장), 약용식물(시호, 당귀, 황기), 양돈, 양계, 버섯, 토마토, 딸기, 양채류, 풋콩
	내수지향 (22)	매실, 생식용 포도, 생식용 복숭아, 유자, 들깨, 울무, 차, 마, 수박, 참외, 멜론, 생강, 파, 사료작물, 산양, 산채류, 양잠, 땅콩, 무, 배추, 사슴, 꿀벌
기 초 작 목 (12)		쌀,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고추, 마늘, 양파, 참깨, 한우, 낙농
기 타 작 목 (20)		대추, 팥, 녹두, 완두, 강남콩, 밀, 메밀, 호밀, 귀리, 조, 수수, 호프, 유채, 섬유작물, 연뿌리, 양앵두, 바나나, 파인애플, 가공용 포도, 가공용 복숭아

이와 같이 분류한 것은 기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91년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것이며 국제시장의 여건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것이다.

농산물의 경쟁력은 수량성, 생산비, 노동투하 시간, 품질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며, 내수지향 품목은 수송성, 국민 식생활의 전통성 등에 따라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기 어려운 작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분류된 작목을 분석하여 볼 때 수출지향작목을 제외한 나머지 작목들은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작목이 단순한 1차생산에 대한 소득개념으로는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식량작물인 쌀, 보리, 콩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규모의 영세성과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기계화 부진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표 5).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러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2004년까지 연구개발목표를 설정하

여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달성 이후에도 이들 작목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지여건에서는 단위당 수량이나 품질은 향상시킬 수 있으나 노력투하시간과 생산비는 경쟁국보다 높아 생산비 절감으로는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표 6).

이러한 상황에서 농산물이 완전 개방된다면 경쟁력이 없는 작목은 농업인이 생산할 수 없게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해당 작목의 생산기반은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식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초식량 작물의 생산과 안정적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적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수입농산물과 경쟁이 안되므로 수익성이 없는 작목을 농업인들에게 계속 생산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식량의 안보적 중요성을 농업인에게만 떠 맡길 수도 없는 것이다.

〈표 5〉 기초식량작물의 경쟁력 비교

품 목	비 교 요 인	국 가 별		
		한 국	일 본	미 국
쌀	수 량(kg/10a)	449	432	438
	노 력(시간/10a)	42.2	43.1	1.2 ~ 1.7
	생산비(원/kg)	862	2,299	236
	가 격(원/kg)	1,580	1,922	317
보 리	수 량(kg/10a)	440	314	261
	노 력(시간/10a)	25.7	8.9	-
	생산비(원/kg)	417	1,358	81
	가 격(원/kg)	527	1,128	123
콩	수 량(kg/10a)	168	140	235
	노 력(시간/10a)	75.3	29.0	0.8
	생산비(원/kg)	1,838	2,586	138
	단백질함량(%)	41.3	35.3	33.0
	지 방함량(%)	17.6	19.0	21.7

〈표 6〉 기초식량작물의 연구개발목표

품 목	구 분	1997	2001	2004(A)	경쟁국(B)	대비(A/B)
쌀	수 량(kg/10a)	486	510	515	438	118
	노 력(시간/10a)	19.8	8.3	5.0	1.2	417
	생산비(원/kg)	601	450	410	236	173
보 리	수 량(kg/10a)	185	600	600	261	230%
	노 력(시간/10a)	25.7	8.9	-	-	-
	생산비(원/kg)	280	203	203	81	284
콩	수 량(kg/10a)	185	200	225	235	96%
	노 력(시간/10a)	51.0	25.0	10.0	0.8	125
	단백질함량(%)	43~45	45~50	50이상	33	151

따라서 기초식량작물 관련산업 전반에서 창출되는 부가이익을 생산자인 농업인에게 돌려 줄 수 있는 통합경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경영에 의해서도 경쟁이 불가능할 때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력하여 경제논리를 초월한 범국민운동으로 경쟁력을 창출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 IV. 생산자 중심의 통합경영에 의한 경쟁력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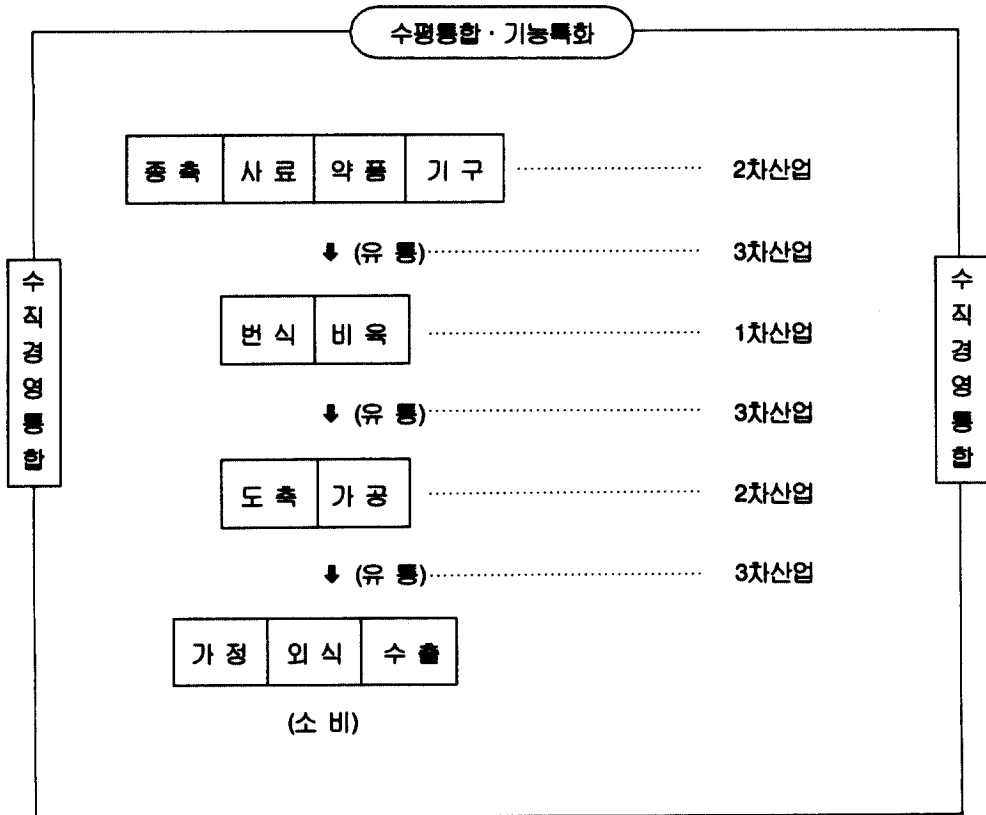
##### 1. 농산물의 통합경영체제 도입

농산물의 통합경영은 생산자재 공급, 농장생산, 생산물의 가공·유통 그리고 외식소비의 전 과정에 있어서 생산, 가공, 유통의 독자적인 경

영체계를 수평적으로 생산, 가공, 유통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특화하고 수직적으로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2단계 이상의 경영을 소유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일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수직적 거래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유통경로와는 달리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한 수직적 유통시스템이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수직적 유통시스템은 전통적인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영업상의 절약과 시장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미리 관리되고 계획되는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통체계는 종래의 전통적인 유통경로에 비해 규모, 교섭력 및 중복 서비스의 배제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1994, 박영인).

농업부문에서도 이러한 비농업부문의 유통체계 변화를 경험하고 자가소비위주의 농업생산에서 산업화로 변화하면서 생산자재의 공급,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과의 효율적 관계정립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농업 및 2, 3차 산업을 종합적으로 소비자 지향적인 농산업(agribusiness)개념이 대두되었다. 이는 유통단계 각 부분의 전문화와 함께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하여 여러 부분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하는 통합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1차산업에서도 경제통합의 원리를 적용하여 산업의 고도화 추세에서 농업이 생존 발전하기 위한 경영합리화의 방법으로 원용되고 있으며, 특히 양계나 돈육산업에서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그림 1).



\* 자료 : 한국축산경영학회,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돈, 양계의 통합경영 심포지엄”, 1993.

<그림 1> 축산부문의 통합경영 모형

2. 경종부문에서의 통합 경영

농산물이 생산되어 소비자가 이용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우선 생산에 필요한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생산분야에서 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저장, 가공, 포장 그리고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최종 소비자에게 도착되면서 형성되는 농산물 시장 가격은 생산농업인이 받는 수취가격과는 큰 차이가 있다. 가공되지 않고 생산된 형태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의 농업인 수취가격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칠 때 소비자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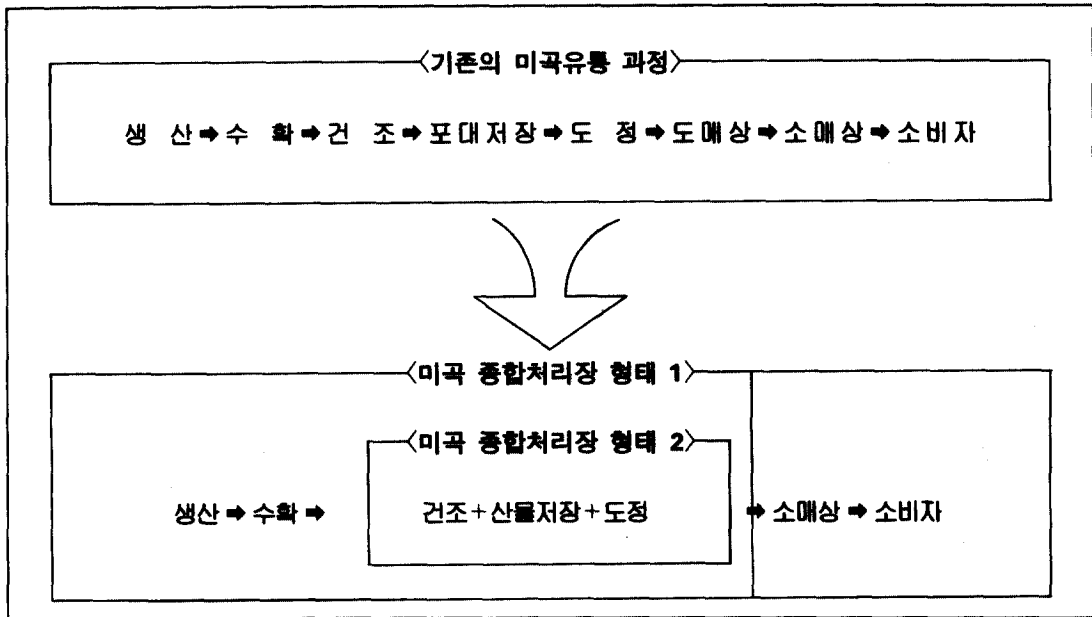
의 50% 정도이며, 가공농산물, 수출농산물의 경우에는 20% 이하가 되고 있다.

경종부문에서도 계약재배 형태의 통합경영이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특용작물에서 계약형식에 따라 생산과 판매, 생산과 가공, 생산과 수출기능을 상호 연계한 부분통합이었다. 최근에는 채소, 과실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한 화훼까지도 활용되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품목별 영농조합을 설립하여 생산, 가공, 유통기능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표 7).

<표 7> 영농조합법인 설립현황

(94년말 기준)

설립 조직 수 (개소)					조합원 수
계	미곡	원예	축산	복합	
1,298	209	308	313	468	28,669



\* 자료 : 박동규, 쌀 생산·가공처리 및 판매의 시스템화에 관한 연구, 1993.

<그림 2> 미곡유통과정의 변화

대표적인 통합사례는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을 설치하여 쌀의 생산, 가공, 판매를 일괄처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91년 시범적으로 2개소, 92년 30개소, 93년 50개소, 94년 65개소 등 147개 RPC가 지정되었다. 앞으로 97년까지 총 300개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94년까지 추진된 사업량 중 농협이 108개, 일반사업자가 39개소를 소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인 조직이 경영주체가 되어 운영될 때 부가적인 이익을 생산자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품질의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RPC에서는 종자공급을 대행하고, 위탁영농회사 운영으로 생산부문에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며, 시차별로 수확된 양질의 벼는 RPC라는 가공 및 유통업체를 통하여 미질향상과 함께 각종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양질의 저가상품을 공급받게 하는 쌀산업의 통합주체로 정의될 수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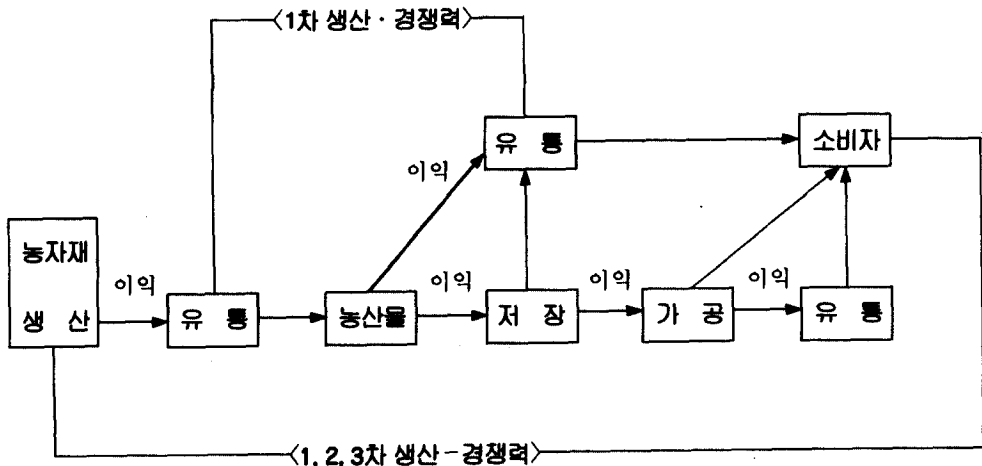
RPC 운영은 통합경영 이론에 따라 통합거점은 도정공장이어야 하고 그 이전의 원료생산과 그 이후의 제품판매는 상호연계되는 기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부분통합이 아닌 완전통합을 이루어 일괄 경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정공장·종합처리장의 기능을 확대

하여 가공식품 생산과 복합통합이라 할 수 있는 연계식품의 가공기능까지 확대하여 생산 농업인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3.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농업관련산업에 있어서 통합경영은 농업인이 경영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경영은 농업인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생산자인 농업인을 결합하여 품목의 특화와 집단경영에 역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 조직을 통한 교섭능력을 극대화 하여 생산자가 주체가 되어 관련산업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익집단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증점적으로 육성하여 농업인이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모든 정부지원 시책은 이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생산자 조직에서는 생산부문으로만 경쟁력이 없을 경우 관련산업 전과정을 통합경영하여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가이익을 생산자인 농업인의 몫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그림 3).



<그림 3> 농업관련산업의 통합경영에 의한 경쟁력 제고 모형



앞으로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기초 식량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산업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농업인이 직접 통합경영하거나 농업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관련부분과 협약 등을 통해 1차 생산부문에 낮은 경쟁력을 2, 3차 생산과정의 부가이익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쌀의 지대별 차별화 생산방안

우리나라의 벼 재배면적은 94년말 현재 1,103천ha이며, 이 중에서 2004년까지 일반경지정리를 902천ha 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경지재정리는 2004년까지 200천ha를 할 계획이며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의 면적은 201천ha가 될 전망이다(표 9).

<표 8>

2004년까지 경지정리 투자계획

(단위 : 천ha)

구 분	총 면 적	경지정리면적	경지정리 제외면적
계	1,103	902	201
진 흥 지 역	735	735(200)	-
진 흥 지 역 밖	368	167	201

\* ( )내는 대규모(1 ha) 경지재정리 면적임.

따라서 쌀의 상품 차별화는 이러한 지대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용도별 쌀생산 차별화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첫째, 대단위 경지정리지역(20만ha)에서는 대형기계화에 의한 쌀 생산비를 절감하여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대에서의 통합경영은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여 생산부문에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도정·가공부문에서는 현재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도정하는 기능을 이양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표 9).

<표 9>

정부양곡 보관창고 소유자별 시설현황

구 분	계	정 부	농 협	민 간	통 운
동 수 (동)	9,124	7	5,086	3,987	44
평 수 (천평)	818	2	498	313	5
보관능력 (천톤)	4,712	10	2,893	1,779	30
구 성 비 (%)	100	0.2	61.4	37.8	0.6

또한 통합경영에 의한 농자재 일괄구입에 따른 추가이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지대에서는 보리의 생산기반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벼+보리」의 작부체계와

단지화, 기계화 일관체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벼 수확 동시 보리 파종기술이나 보리 수확동시 벼 파종기술을 도입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수확후 저장, 가

공, 포장까지 일관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리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리 음료나 보리녹차 등 健康食으로서 보리제품을 개발하고 국수, 과자, 빵, 장류제품에 보리 혼합 가루를 이용하는 방안도 도입하여 식량으로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쌀 생산량 감소에 대처해야 한다.

보리를 이용한 전통가공식품인 엿기름, 식혜, 민속주, 고추장 등에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일반 경지정리구역에서는 양질미의 생산기술을 투입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얼굴있는 고품질쌀을 공급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쌀에 대한 선호는 품종, 지역, 포

장 및 안정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지역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 지대에서는 「쌀+소득작목(채소, 화훼)」 작부체계로 농업소득을 올리는 한편 가공식품의 원료 생산과 가공산업에도 참여하여 농외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셋째, 경지규모가 협소하여 대단위 기계화영농이 어려운 진흥지역 밖(산간지역 등)에서는 소비자들의 특수 수요에 부응하는 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 지역에서는 산간지역의 소규모 경지단위의 특수성을 살려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잔류농약의 危害性이 적은 쌀을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들과의 계약에 의한 화학비료 등을 적게 사용하는 有機農業을 도입할 수 있는 적지가 될 수 있다(표 10).

<표 10>

유기농업 실천 농가

(93. 10 농촌진흥청 조사)

구 분	계	무비, 무농약	시비, 무농약	무비, 농약
농 가 수	1,258 농가 (1,146)	486 (384)	611 (505)	161 (257)
면 적	655 ha (511)	259 (130)	321 (270)	75 (111)

\* ( )내는 91년 조사결과임.

또한 지역특성이나 소비자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쌀+양어」 「쌀+오리」, 특수미 가공 등 특수농업 작부체계를 도입하여 관광농업과 건강식품사업도 병행하여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 V. 생산자와 소비자 협력 경쟁력 제고

우리나라 콩 재배는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기상조건이 불리하여 수량성은 낮으나 단백질 함량 및 두부수율이 수입콩보다 높아 품질면에서는 우수하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 면에서도 국산콩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어 국산콩에 대한 소

비자의 선호도가 향상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콩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국산 고유의 전통식품용 나물콩, 밥밀 검정콩 및 풋콩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메주콩의 경우 소비자들의 호응 없이는 경쟁력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메주콩을 우리 농경지에서 지속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연계한 콩 가공식품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있어야 한다. 한 가지 방안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국산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찾는 소비자를 연결하여 전통 가공식품인 메주를 만들어 주거나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두부 등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가공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전통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농촌주부와 연결하여 원료생산에서 제조·가공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우리콩으로 만든 메주로 담근 간장, 된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생산농업인들은 안정된 농업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어 우리콩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농간의 활발한 교류로 서로를 이해 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여성 일감갹기사업으로 메주판매마을 50여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 개소당 연간 평균 3,000여개의 메주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개소당 약 5톤의 메주콩 원료의 수요가 있어 총 250톤 가량의 국산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전통가공식품에 소요되는 콩도 소비자와 연계하면 상당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VI. 결론 및 제언

기초식량작물은 완전개방이 될 경우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국민의 기본 식생활에 중요한 작목을 수입농산물에 의존한다는 것은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더구나 국토보존이나 환경보전이라는 농업외적 기능까지를 생각할 때 기초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국가존립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미 상업농시대에 접어든 농업인에게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수지가 맞지 않는 작목을 계속 생산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기초식량작물만은 전 국민이 함께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기초식량작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1차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적인 방법으로 국제경쟁력이 불가능할 경우 작물별 2, 3차 관련산업을 통합경영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 이

러한 통합경영으로도 경쟁력이 없을 때에는 소비자와 협력하는 체계 속에서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이익은 생산자인 농업인의 몫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초식량작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식량작물의 지속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소규모 다수 농업인을 유형별로 조직화하여 교섭능력을 키워주는 강력한 농어촌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생산자 조직이 주도하는 농업관련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경영하거나 협약생산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앞으로 기초식량작물의 가공식품산업은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 조직규모에서 운영할 수 없는 저장·유통분야는 전국적인 규모로 연합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끝으로 농촌지도기관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품목별 농업인 조직을 육성하고 이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초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전 국민적인 호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 VI. 참고 문헌

1. 김명환 외. 시장개방 이후 식량작물의 증장기 수급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2. 김성수 외. UR협상에 따른 농민 자조적 대응전략에 관한 조사연구, 과학기술처, 1991.
3. 김성수 외 2. "작물반 실태조사를 통한 발전모형 개발연구", 농촌지도학회지 제2권(1):23-39, 1995.
4. 김윤선. "식량작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94 농업과학학술토론회 자료: 17-43, 1994.

5. 김종숙 외.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6.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주요통계, 1995.
7.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1996.
8.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업무참고자료, 1995.
9. 농촌진흥청. 작목별 기술대응방안, 1995.
10. 박동규.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제18권(4):31-41, 1995.
11. 박동규 외. 쌀생산·가공처리 및 판매의 시스템화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1993.
12. 박영인. 한국농업의 통합경영, 홍익재, 1994.
13. 서종혁 외. 쌀의 지역별 차별화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14. 이동필 외. 전통가공식품의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15. 이상하. "상업농시대의 농민조직체계 전환", 연구와 지도 제31권(2):73-78, 1990.
16. 정찬길. "계약생산과 통합경영을 통한 양돈산업의 구조 개선", 한국축산경영학회지 제10권(1):142-162, 1995.
17. 정홍우 외. 수도작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1994.
18. 최민호. 농민후계자 중심 전문작목별 조직육성을 위한 방안 연구, 농업산학협동 용역 연구 발표자료, 농촌진흥청 지도국, 1991.
19. 최원개 외. 작목별 협의회 조직운영의 활성화 방안, 진주산업대 논문집 제32권: 85-95, 1993.
20. 허 덕. "대규모 기업양돈경영의 기술·조직혁신 행동 분석", 한국축산경영학회지 제11권(1):103-124, 1996.